

## \* 일본

### 일본 후쿠오카, 글로벌 창업특구를 향한 발돋움

글 : 이정찬 (ilee@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본은 지난 해 3월 말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를 통해서 국가전략특별구역을 지정했다. 국가전략특구는 일본 아베정권의 성장전략 중 하나다. 일본경제재생본부로부터 처음 제안된 만큼 경제 재생과 부흥이 최고 목적이다. 일본의 경제 핵심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도쿄권, 간사이권 등을 포함해 특구 수는 현재 총 여섯 개다.

후쿠오카시 또한 국가전략특구 중 하나다. 후쿠오카를 「글로벌 창업·고용창출 특구」 소위 ‘창업특구’로 만들어 글로벌창업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후쿠오카를 창업특구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훌륭한 창업 환경이다. 대표적인 것만 추려보면 첫째, 후쿠오카는 가장 활기차고 창의적인 도시다. 일본 대도시 중 인가증가율과 청년 비율이 가장 높다. 둘째, 교통 인프라와 입지 우위성이 가장 좋은 도시다. 통근·통학 시간이 일본 7개 대도시권 가운데 제일 짧고 도심에서 단 11분이면 국제공항에 다다를 수 있다. 이는 일본 1위, 세계 4위의 수치다. 셋째, 정주여건, 근무환경이 제일 좋은 도시다. 비즈니스맨 대상 설문 결과 후쿠오카를 가장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도시로 응답했다.

창업지원의 역사 또한 길다. 후쿠오카는 오래 전부터 창업지원을 실시해 왔다. 2000년에 ‘후쿠오카시 창업자 육성 시설’을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창업지

원을 시작했다. 2003년에는 창업 경영자와 전문가 등 선배 창업자들이 ‘후쿠오카시 창업자 응원단’을 조직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창업자를 지원하였다.

우수한 창업환경과 긴 창업지원 역사에 힘입어 후쿠오카는 일본 대도시 중 가장 높은 개업률과 가장 많은 청년 기업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후쿠오카시는 현재 세계적인 창업특구가 되기 위해 규제와 세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 11월 항공법에 의한 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67m(약 15층)에서 76m(약 17층)로 높였다. ‘대담한’ 법인세 감면도 시도 중이다. 현재 후쿠오카시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32.83%다. 시정부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한해서 법인세를 15%로 감면하려 한다. 이는 싱가포르 보다 낮은 수치다. 너무 대담한 탓인지 일본정부와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후쿠오카시의 강력한 세제 완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창업지원의 핵심 거점은 「스타트업 카페」다. 작년 10월에 오픈한 이곳에는 투자펀드 사원들이 상주해 있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조언한다. 책·DVD 대여 체인점 ‘츠타야(TSUTAYA)’ 건물의 3층에 자리 잡고 있어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들들 수 있도록 했다.

스타트업카페 옆에는 후생노동성이 개설한 「고용노동 상담 센터」가 이웃하고 있다. 여기에는 변호사들이 상주하여 노동문제 등의 법적 분쟁 회피에 대

그림 1: 후쿠오카 스타트업카페 모습



자료: 후쿠오카 특구통신 제3호, <http://t-lokku.city.fukuoka.lg.jp/wp-content/uploads/2015/04/Vol03.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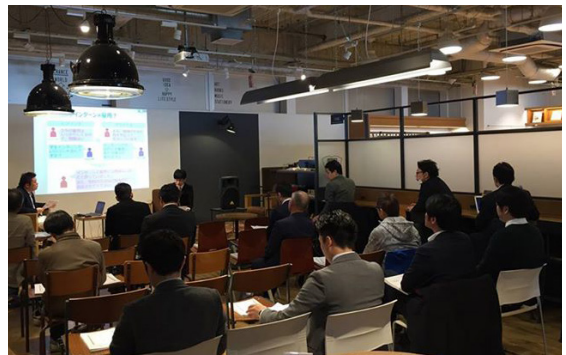


자료: 스타트업카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tartupcafefukuoka/photos/pb.566619896799704.-2207520000,1433205345,580716412056719/?type=3&theater>

그림 2: 후쿠오카 고용노동상담센터 모습



자료: 고용노동상담센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ukuokaecc/photos/pb.1509757939275062.-2207520000,1433206855,1510949252489264/?type=3&theater>



자료: 고용노동상담센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ukuokaecc/photos/pb.1509757939275062.-2207520000,1433205754,1556106567973532/?type=3&theater>

해 조언한다. 건물 한 층에서 공격 태세(스타트업 카페에서 창업 전략 도출)와 수비 태세(고용노동상담센터에서 법적 리스크 관리)를 한 번에 갖출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놀라운데, 스타트업카페에서는 올해 5월 까지 약 6개월간 500건 이상의 창업상담이 이뤄졌다.<sup>1)</sup> 이 중 10건 이상이 여성상품 마케팅 등의 창업으로 이어졌다. 고용노동상담센터에서도 약 2개월

간 14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일반인들에게 창업은 여전히 생소한 단어이다. 후쿠오카의 스타트업카페처럼 우리도 누구나 자주 찾는 편한 곳에 편안한 분위기로 창업상담센터를 마련하면 어떨까? 홈플러스·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도 좋고 백화점도 좋다. 조금 더 열린 공간에 한 발 더 찾아가는 창업지원정책을 고려해 볼 시점이다.

1) 자료: “후쿠오카 「창업특구」, 기업가를 모으는 거리 「성장모델」 발신”(2015. 5. 29), *산케이 뉴스*(<http://www.sankei.com/region/news/150529/rgn1505290064-n1.html>)